

E10에서 E74로 변경된 선원의 고용허용인원 포함 여부 검토

KFSA 이사장 김영근 / 2023. 6. 2.

□ 검토 배경

- 0 법무부는 E9, E10, H2 체류자격 소지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점수제에 따라 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 시행
- 0 E10은 업체별 고용허용인원이 있어 E74로 변경된 선원이 고용허용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 필요
 - 업체별 고용허용인원이 있는 E9과 비교하여 검토

□ E10 관련 규정

0 외국인선원관리지침 (해양수산부)

- 제2조(정의) 2호. “외국인선원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함

0 E10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(법무부)

- E10 도입규모 결정 :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간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합의 → 해양수산부에서 적정성 검토 후 법무부에 건의 → 법무부에서 외국인선원 도입규모 최종 결정
- 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는 E10-1, E10-2, E10-3 별로 정해진 선원취업(E10) 자격자의 총수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총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(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제출)
- 선박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이 E10-1, E10-2, E10-3 별로 규정

□ E9 관련 규정

0 E9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(법무부)

- E9 도입규모 결정 :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
- 지방노동관서는 비전문취업(E9) 자격자의 총수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, 지방 출입국·외국인관서는 고용허가서 내용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
□ E7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인원 포함 여부

- 0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E9과 E10 모두 체류자격별로 총정원이 정해지고 있어 E74로 체류자격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
 - E9은 실제 고용허가인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E10은 제외 여부 불분명
- 0 E10의 경우 수협과 노조의 협의를 통해 “외국인 선원” 도입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E74로 자격변경된 외국인선원은 물론 결혼이민자(F6), 영주자격자(F5) 등 별도의 법무부 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외국인들이 고용허가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 존재

□ 검토 결과

- 0 앞으로 모든 산업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어선원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인 바, E10 소지 숙련어선원을 E74로 자격변경하는 제도는 어업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음
- 0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협과 노조 간의 협의에 의해 외국인선원 도입 규모를 정할 때 “외국인선원” 보다 “E10 체류자격자”의 도입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